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예술전문사학위논문

지도교수 임 준 희

제주도 토속민요 <홍애기소리>의 음악적 특징 연구

A Study on the Musirical Characteristics of
Korean Folk songs in Jeju Island *Hongaegi-Sori*

2018년 2월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과정
전통예술원 한국음악작곡과 작곡전공
박 주 화

제주도 토속민요 <홍애기소리>의 음악적 특징 연구

지도교수 : 임 준 희

이 논문을 예술전문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2월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과정
전통예술원 한국음악작곡과 작곡전공
박 주 화

박 주 화의 예술전문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7년 12월

심사위원장 김 성 진 (印)

위 원 임 준 희 (印)

위 원 김 정 희 (印)

국문초록

본고의 목적은 제주도 토속민요 중 <홍애기소리>의 음악적 특징을 밝히는 것이었으며, 『한국민요대전』에 수록된 9곡의 <홍애기소리>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먼저 <홍애기소리>가 가진 공통의 특징으로는 첫째, 도약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순차진행 위주의 선율구조이다.

둘째, 음고의 변화가 크지 않으며 하행하는 선율이 많다.

셋째, 잘게 쪼개는 1자다음식(melismatic)의 선율과 긴 지속음이 교대로 구성된다.

넷째, 후렴구를 길게 끌다가 퇴성하는 특징이 있다.

다섯째, 느리며, 시김새가 강하지 않다.

공통되지 않은 <홍애기소리> 각각의 특징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제주에 전승된 <홍애기소리>는 슬음계가 많으며, 남제주에 전승된 <홍애기소리>는 오돌또기조가 많다.

둘째, 기능에 따라 가창방식이 달라진다. 다수가 함께 노동하는 경우에는 노래가 메기고받는방식으로 부르며, 혼자서 노동하는 경우에는 독창으로 부른다.

셋째, 메기는소리와 받는소리가 헤테로포니를 이루거나 부분적으로 겹치는 곡들이 있다.

이상과 같이 제주도 토속민요 <홍애기소리>가 갖는 음악적 특징을 정리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가 <홍애기소리>에 대한 이해를 돕고, 창작에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목 차

I. 서론	1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
2.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3
II. 흥애기류 토속민요 음악 특징 분석	5
1. 북제주군 구좌읍 덕천리 진토굿 파는소리	5
1) 노랫말	6
2) 음악적특징	6
2. 북제주군 조천읍 신촌리 진토굿 파는 소리	7
1) 노랫말	7
2) 음악적 특징	8
3. 북제주군 조천읍 조천리 풀베는 소리	9
1) 노랫말	9
2) 음악적 특징	10
4. 북제주군 애월읍 남읍리 진토굿 파는 소리	11
1) 노랫말	11
2) 음악적 특징	12
5. 북제주군 애월읍 어음2리 연자맷돌끌어내리는 소리	13
1) 노랫말	13
2) 음악적 특징	14
6. 남제주군 남원읍 신흥리 밭매는 소리 흥애기	14
1) 노랫말	15
2) 음악적 특징	16
7. 남제주군 성산읍 삼달1리 풀베는소리	17
1) 노랫말	17

2) 음악적 특징	19
8. 남제주군 표선면 성읍1리 발매는소리 흥애기	20
1) 노랫말	20
2) 음악적 특징	21
9. 남제주군 표선면 성읍2리 발매는소리 흥애기	22
1) 노랫말	22
2) 음악적 특징	23
Ⅲ. 흥애기류 토속민요 음악 특징 비교분석	24
Ⅳ. 결론	28
참고문헌	29
Abstract	30

〈악보 차례〉

〈악보 1〉 제주0214_1989/강인생(여, 1914) 외	6
〈악보 2〉 제주0105_1989/강대홍(남, 1929) 외	8
〈악보 3〉 제주0107_1989/고수천(여, 1927)	10
〈악보 4〉 제주0906_1989/고학명(남, 1915) 외	12
〈악보 5〉 제주0911_1989/문창석(남, 1961) 외	14
〈악보 6〉 제주0513_1989/김만권(남, 1920) 외	16
〈악보 7〉 제주0318_1989/ 가: 강재흡(남, 1922), 나: 강재훈(남, 1924) ...	19
〈악보 8〉 제주0402_1989/조을선(여, 1915) 외	21
〈악보 9〉 제주0417_1989/홍복순(여, 1931) 외	23

<표 차례>

<표 1> 노동기능에 따른 <홍애기 소리>	2
<표 2> 『MBC한국민요대전』 수록곡	4
<표 3> <홍애기 소리> 음악적 특징 비교분석	24

I.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우리나라에는 지역마다 무수히 많은 토속민요¹⁾가 있다. 민요는 본래 전공자만 불렀던 음악이 아닌 비전공자들도 많이 불렀던 노래이며, 자신들 삶의 일부로서 삶의 경험과 정서를 부여해 노래에 반영한 것이다.²⁾

이들의 삶은 지역 속에 뿌리를 내리고 영위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삶의 경험과 정서를 담아 만든 민요 또한 지역마다 각각의 특성이 드러난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담고 있는 민요에 대한 연구는 우리음악의 본질을 알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지리·문화·민속·풍토 등이 특수한³⁾ 제주도의 토속민요 중 <홍애기소리>는 제주도 내 여러 지역에서 전승되면서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민요이다. <표1>은 여러 기능에 따른 <홍애기소리>에 대한 해설이다.⁴⁾

1) 토속민요란 지방에서 비전문가들이 부르는 소박한 민요를 통칭하는 것이다. 토속민요는 통속민요와는 달리 특정 지방에서만 불리는 노래이다. 따라서 그 지방 민요의 특색이 가장 잘 나타나 있기도 하지만, 전국적으로 유행되지 못한 민요이다. 송방송, 『한겨레음악대사전 下』(서울: 보고사, 2013), 1916쪽.

2) 이정란, “제주민요의 음악적 특징,” 『MBC 한국민요대전: 제주도 민요해설집』(서울: 문화방송, 1995).

3) 지형적 특징으로 인해 해녀문화 또한 발달되어 있으며, 한 올타리 안에 아버지와 아들 식구들이 더불어 살면서도 취사와 경제단위는 독립하는 독특한 문화의 예가 흔하다. …(중략)… 제주도는 매우 좁은 지역에 기기묘묘한 지형경관이 집중되어 있고, 기후와 토지가 척박하여 바다생활을 전통적으로 행해 왔다. 김영돈, 『제주도 제주사람』(서울: 민속원, 2000), 27-37쪽.

4) 『한국민속문학사전(민요편)』(서울: 국립민속박물관, 2013), 502-503쪽에 수록된 홍애기소리를 참고하여 표로 재구성하였음.

<표 1> 노동기능에 따른 <홍애기 소리>

순서	기능	세부내용
1	밭매는 홍애기	<검질매는 소리> 중에서도 오뉴월 띄약별 아래서 밭을 매는 힘든 노동에서 불렀던 노래로, ‘검질매는 홍애기’라고 한다. 주로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일부 지역과 표선면, 남원읍, 서귀포 동쪽 일대에서 불렀다. “음— 야헤— 어허기야— 흥—” 하는 후렴이 따르며, 사대나 아웨기 등 다른 <검질매는 소리>에 비해 가락이 느리고 유장하다. 이 소리를 ‘솔기소리’라고 하는 지역도 있다.
2	풀 베는 홍애기	추운 계절이 되면 방목하던 마소 떼를 외양간에 들여놓고 겨울을 나게 되는데, 겨우내 마소에게 먹일 풀을 베거나 퇴비로 쓰기 위한 풀을 벨 때 불렀던 노래가 <출 비는 홍애기>이다. <출 비는 홍애기>는 지역에 따라 사설과 가락이 조금씩 다르다. 주로 풀 베는 노동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설로 이루어져 있으며, 동부 지역에 비해 서부지역의 가락이 소박하고 단순한 느낌을 준다.
3	방앗돌 내리는 홍애기	도정 도구인 연자매를 만들기 위해 장정들이 산에서 크고 넓적한 돌을 끌어 내릴 때 방앗돌을 굴리면서 부르는 소리이다. 돌을 내리는 일은 매우 힘들고 위험했다. 그래서 집꾼들이 서로 협력하여 힘을 모으기 위해 누군가 “홍애기나 하면서 가자” 하면 부르기 시작했다. 이를 ‘방앗돌 끌어 내리는 홍애기’라고 하는데, “아헤— 야하— 흥” 하는 후렴이 따른다.
4	나무 자르는 홍애기	집이나 배를 짓기 위해 깊은 산속에서 나무를 베어낼 때 큰 톱을 양편에서 밀고 당기면서 통나무를 베거나, 도끼로 나무를 쪼개어 장작을 때는 힘든 노동에서 불렀던 소리를 ‘낭 끈치는 홍애기’라고 한다. 벌채 도구에 따라 노래의 기능이 명확히 분화되어 사설을 달리 불리며, 후렴에 “홍아기로구나(홍애기로구나)”, “홍아기야(홍애기야)”, “홍애로구나”, “—흥” 하는 후렴이 따른다. 나무를 내릴 때에도 사설의 위에 “—흥”이 반복적으로 구연된다.

이처럼 기능이 다양한 것으로 볼 때 <홍애기소리>는 아주 오래 전부터 제주도민들의 생활 속에서 불리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홍애기소리>는 제주도 고유의 음악적 특징을 잘 간직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홍애기소리>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는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 지금까지 음악적 관점에서 연구된 <홍애기소리> 관련 논문은 조영배의 “제주도 노동요의 음조직과 선율 구조에 관한 연구”⁵⁾가 거의 유일하다. 이에 따

5) 조영배, “제주도 노동요의 음조직과 선율 구조에 관한 연구”(서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4).

르면 <홍애기소리>는 선소리나 후렴의 각 프레이즈를 단락 지을 때 긴 음을 퇴성(退聲)처리하는 경우가 자주 나타나며, 자유리듬으로 부르는 민요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느리게 전개되고, 후렴이 짧기 때문에 헤테로포니 현상은 그리 자주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런데 이 논문은 제주도의 노동요 전반을 다루는 과정에서 <홍애기소리>의 대략적 특성을 논한 것으로, 개별곡들의 세부적인 특징까지 논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홍애기소리>를 세밀히 분석한 후 공통된 특징과 개별곡의 특징을 밝히도록 하겠다.

2.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본고에서 다룰 자료의 범위는 『MBC한국민요대전』에 수록되어있는 곡들이다. 『MBC한국민요대전(제주도 민요해설집)』에 수록된 음원들을 선택한 이유는 음질이 다른 음원에 비해 비교적 우수하고 <홍애기소리>류가 총 9곡으로 가장 많이 수록되어있기 때문이다. 곡목은 <표 2>와 같다.

<표 2> 『MBC한국민요대전』 수록곡

순서	제목	지역	창자	길이
1	진토굿 파는소리(0214)	북제주군 구좌읍 덕천리	앞소리: 홍복순(여, 1931) 뒷소리: 여럿	5:57
2	진토굿 파는소리(0105)	북제주군 조천읍 신촌리	앞소리: 강대홍(남, 1929) 뒷소리: 여럿	6:54
3	진토굿 파는소리(0906)	북제주군 애월읍 남읍리	앞소리: 고헌명(남, 1915) 뒷소리: 여럿	6:11
4	꽃베는소리(0107)	북제주군 조천읍 조촌리	고수천(여, 1927)	2:19
5	연자맷돌 끌어내리는 소리 (0911)	북제주군 애월읍 어음2리	앞소리: 문창석(남, 1961) 뒷소리: 여럿	5:13
6	꽃베는소리(0318)	남제주군 성산읍 삼달1리	가: 강재흡(남, 1922) 나: 강재훈(남, 1924) 다: 강성태(남, 1930) ⁶⁾	6:47
7	발매는소리 흥애기(0513)	남제주군 남원읍 신흥리	앞소리: 김만권(남, 1920) 뒷소리: 여럿	4:23
8	발매는소리 흥애기(0402)	남제주군 표선면 성읍1리	앞소리: 조을선(여, 1915) 뒷소리: 여럿	6:34
9	발매는소리 흥애기(0417)	남제주군 표선면 성읍2리	앞소리: 홍복순(여, 1931) 뒷소리: 여럿	5:57

연구방법은 위에 언급된 모든 곡들을 채보하고 채보한 악보들을 토대로 선율형·리듬형 그리고 가창방식·가사형태를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제주 토속민요 <흥애기소리>류가 가진 공통된 음악적 특징과 각각의 곡들이 가지고 있는 개별 특징들을 파악할 것이다. 채보를 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실음 기준으로 오선보에 채보할 것이며, 음조직 분석은 김정희⁷⁾의 이론을 참고할 것이다.

6) 8곡의 다른 민요와는 달리 3성부로 나누어 부르는 형태이기 때문에 앞소리, 뒷소리로 표기하지 않고 가, 나, 다로 표기하였다.

7) 김정희, “토속민요 음조직의 변이 양상”(서울: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6).

II. <홍애기소리>의 음악적 특징

1. 북제주군 조천읍 신촌리 <진토굿 파는 소리>

이 곡은 가래질로 묘터를 고르거나 분묘를 만들면서 하는 무덤가래질소리이다. 봉분을 쌓기 위해 가까운 밭에서 가래질로 흙을 파는데, 이 흙을 ‘진토’라 하고, 흙을 파낸 자리를 ‘진토굿’이라고 한다. 진토굿 파는소리는 제주 지방에서만 있는 노래로, 산북지방의 진토굿 파는소리는 애절함이 넘쳐 흐르나 옛 대정지방이 있던 산남지방의 선소리는 오히려 역동적인 느낌을 주기도 한다. 덕천리의 <진토굿 파는 소리>는 산북지방의 특징이 잘 드러나 있다.⁸⁾ 남제주군에는 <홍애기소리>를 진토굿 파는 소리로 부른 예가 보이지 않은 반면 북제주군에서는 세 곡이 관찰된다.

1) 노랫말

1. 망경창과 이수중에 나는 가서 다녀오리라 (후렴) 아 오
2. 가면 가고 말면 말았지
3. 간다 간다 나는 갔다 오리라
4. 나는 인제 가면 내년 이철 춘삼월에 다시 돌아오리라
5. 가며 오며 잠관 잠관 다녀오리라
6. 저승질이 멀다더니 조반전의 갔다 오리라
7. 인생 일장 춘몽중에 갔다 오리라
8. 한번 낳고 한번 죽긴 정한 이치가 뻗습니다
9. 높은산 깊은산 마련을 흐고 다녀오리라

8) (주)문화방송. 『MBC 한국민요대전: 제주도 민요해설집』(서울: 문화방송, 1995), 92쪽 참조.

이 곡은 총 9절로 되어있으며, 기능이 무덤 가래질소리이다보니 노랫말이 모두 죽음과 연관된다. 노랫말에서 ‘다녀오리라’ 또는 ‘갔다 오리라’라는 말이 여러 차례 반복되는데, 이는 이승을 떠나는 아쉬움을 망자의 입장에서 노래한 것이다. 운율은 대체로 4.4조이며, 절과 후렴이 반복되는 윗절형식이다.

2) 음악적 특징

<악보 1> 제주0214_1989/강인생(여, 1914) 외

<악보 1>은 전체적으로 3분박이며, 각 마디가 3~5박으로 구성된다. 제4마디 앞부분은 헤미올라리듬을 썼으며, 긴 지속음을 많이 썼다.

음조직에서 구성음은 라·도·레·미·솔이며, 핵음은 라·레이다. 메기는소리의 종지음(4마디)과 받는소리의 종지음(6마디) 모두 레이다. 선율진행은 제3마디 첫 박에서 완전4도 도약한 후 순차 상행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생략되는 음 없이 순차 하행 위주로 진행된다. 시김새 특성은 강하지 않다. 즉 오돌또기조⁹⁾에 해당한다.

잘게 쪼개는 1자다음식(melismatic)의 선율과 긴 지속음이 교대로 구성되

9) 오돌또기조에 대해서는 김정희, “토속민요 음조직의 변이 양상”(서울: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6), 49-52쪽 참조.

며, 긴 지속음의 끝을 대체로 퇴성하는 점이 특징이다. 제4마디 끝에서 받는 소리가 1박 먼저 나와서 메기는소리와 잠시 겹쳐지는 점도 특징이다. 이 곡의 구조를 보면 메기고받는형식¹⁰⁾이나, 가창방식은 독창으로 불렀다.

2. 북제주군 조천읍 신촌리 <진토굿 파는 소리>

이 곡 역시 앞서 살펴본 곡과 같은 무덤가래질소리이다. 봉분을 쌓기 위해 서는 많은 흙이 필요한데, 보통 근처 떠밭(테역밭)에서 파온다.¹¹⁾

1) 노랫말

어야 어야

어허어어어어에오오야 솔기로구나 예아아호

1. 노세놀아 젊아놀아 늙어지면 못노리라

(후렴) 에어야 솔기로구나 예아아호

2. 한로산아 잘있거라 부모동생 이별하고

3. 인생한번 죽어지면 세상만사가 허사로구나

4. 베리오름¹²⁾ 도멧불¹³⁾은 전기속으로 오락가락

5. 인생이라 한것은 토란잎에 이슬이로구나

6. 오닐날은 일기도 좋고 동넷어른덜도 수고가 많습니다

7. 아이고지고 통곡을 말어

8. 노세놀아 젊아놀자 늙어지면 못노리라

10) ‘메기고 받는 형식’은 선율구조와 단락의 연관성을 기호화 하는 것을 뜻하며, ‘메기고 받는 방식’은 노래 부르는 방식을 뜻한다.

11) (주)문화방송. 『MBC 한국민요대전: 제주도 민요해설집』, 34-5쪽 참조.

12) 베리오름: 제주시 화북동에 있는 기생화산 이름.

13) 도멧불: 등대불.

9. 칠성판을 등에 지고 혼백상을 머리에 여저¹⁴⁾

이 곡은 총 9절로 되어있으며, 죽음에 빗대어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1절과 8절에서는 유흥요에서 주로 나오는 “노세놀아 쭉아 놀아 늙어지면 못노리라”라는 구절이 있어 죽음을 노래한 부분과 선명한 대비를 보인다. 6절에서는 무덤가래질을 하는 일꾼들을 격려하는 내용으로 보인다. 운율은 역시 4.4.조가 많으며, 절과 후렴이 반복되는 유절형식이다.

2) 음악적 특징

<악보 2> 제주0105_1989/강대흥(남, 1929) 외

<악보 2> 또한 전체적으로 3분박이며, 각 마디가 3~6박으로 구성된다. 이 곡에서는 잘게 쪼개는 리듬이 더 많이 쓰인 점이 특징이다.

구성음은 라·도·레·미·솔이며, 중심은은 라·레이고, 종지음은 레이다. 제1마디 앞부분은 순차적으로 상행하는 선율구조이며, 뒷부분은 순차적으로 하행하는 선율구조이다. 제2마디에서는 메김의 중간부분을 제외하고 지속음을

14) 여저: 없어.

사용한다. 제3마디는 순차적으로 하행하는 선율구조이다. 시김새 특성은 강하지 않다.

제2마디를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잘게 쪼개는 1자다음식(melismatic)의 선율로 구성되어 있으며, 앞 곡과 마찬가지로 긴 지속음이 나타날 때 대체로 끝을 퇴성한다. 제2마디에서는 메기는소리와 받는소리가 함께 헤테로포니를 이루며, 제3마디 메기는소리 시작부분까지 받는소리가 연장되어 여기서도 두 소리가 잠시 겹친다. 이 곡의 구조는 메기고받는형식으로 되어있으며, 가창방식은 독창으로 불렀다.

3. 북제주군 애월읍 남읍리 <진토긔 파는 소리>

이 곡도 무덤가래질소리이다.

1) 노랫말

이야호 이야호

1. 잠깐 흐면은 향원님네덜 어서 어서덜 믈치고 거들거렁¹⁵⁾ 느려가 봅시다
(후렴) 이야호
2. 매일 이런 일이 잇는게 아니고 어서 어서덜 흐읍소서
3. 월출동경에 둘 솟아 읍네다 어서덜 하읍소서
4. 따비질하매 지치건 교대교대덜 하명덜 향원님네 어서덜 흐읍소서
5. 일락서산에 해는도 일모가 뵈네다 어서덜 흐읍소서
6. 향원님네 부지런히 어서 어서 믈치면 갈때는 술 한잔씩 더 드리겟수다
7. 히어 어서어서나 부지런히덜 흐읍소서
8. 향원님네 열뫼이만도 진토를 나르면 어서 어서 믈치고 가읍시다

15) 거들거리며

9. 일심헌면은 삼십분 내에 못치고 거들거령 느려잡시다

10. 수만석도 모다들면¹⁶⁾ 가볍는 술기웨다

이 곡은 총10절로 되어있으며, 봉분을 만들기 위해 흙을 부지런히 파자고 독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운율이 불규칙하나 대체로 4.4조의 변형으로 볼 수 있다. ‘이야호’라는 후렴이 반복되는 유절형식이다.

2) 음악적 특징

<악보 3> 제주0906_1989/고 학명(남, 1915) 외

The musical score is written for a male voice and a piano accompaniment. It consists of five systems of music. The first four systems are for the voice, and the fifth system is for the piano. The key signature is three flats (B-flat, E-flat, A-flat), and the time signature is 8/8. The lyrics are in Korean. The first system has the lyrics '잠' and '관'. The second system has '허' and '며'. The third system has '느' and '은'. The fourth system has '항' and '원'. The fifth system has '님' and '내'. The sixth system has '얼'. The seventh system has '어' and '서'. The eighth system has '어' and '서'. The ninth system has '얼' and '마'. The tenth system has '치' and '고'. The eleventh system has '거' and '들'. The twelfth system has '거' and '령'. The thirteenth system has '내' and '려'. The fourteenth system has '가' and '보'. The fifteenth system has '시' and '다'. The sixteenth system has '이' and '아'. The seventeenth system has '호'. The eighteenth system has '웅'.

<악보 3>의 박자구조는 마디가 바뀔 때 마다 5/8·6/8·7/8·6/8으로 변한다. 음조직에서 구성음은 도·레·미·솔·라이며, 핵음은 도·솔 이다. 종지음은 도이다. 선율진행은 제1마디 뒷부분에서 완전4도로 도약하는 것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생략되는 음 없이 순차 하행 위주로 진행된다. 시김새 특성은 강하지

16) 모여 들면

않다. 제4마디를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잘게 쪼개는 1자다음식(melismatic)의 선율로 구성되며, 긴 지속음의 끝을 대체로 퇴성하는 점이 특징이다. 이 곡은 메기고받는 형식이며, 가창방식은 독창이다.

4. 북제주군 조천읍 조천리 <꿀베는 소리>

꿀베는소리(출비는소리)는 늦가을에 주로 중산간 지대의 목초지에서 한 해 동안 마소에게 먹일 꼴을 베어낼 때 부르는 노래다. 조천리를 포함한 제주 북동부 지역의 꿀베는소리는 소리의 꾸밈에 있어 산남지방보다 단순하고 소박하나 제주 서부지역의 소리에 비하면 훨씬 기교적이다. 서둘러 이 꼴을 베어야 안심하고 겨우살이를 할 수 있다고 격려하는 등의 사설이 잘 유지되고 있다.¹⁷⁾

1) 노랫말

1. 허야뒤야 산이로구나 어허어 요출 비영 저슬 들건 쉼 맥이곡
홍애기로구나
2. 하늬브름은 설랑설랑 불어오건마는 에 날씨는 곳어간다
어허어 홍애기야
3. 저산뒤에 놀던 므쉬덜아 어허어에 동지선들 설한풍에 에에
집을 좇아온다
4. 칠팔월 하늬브름에는 에 비가 오는 법이로다
어허어 홍애기야
5. 날씨는 검칠킨 해여가고에 자골씨¹⁸⁾는 딱딱 뛰엄구나

17) (주)문화방송. 『MBC 한국민요대전: 제주도 민요해설집』, 37쪽 참조.

18) 자귀풀씨는

어허어 흥애기야

이 곡은 총 5절로 되어있으며, 대체로 4.4.조이다. 소 먹일 꼴을 베며 날씨가 절의 변화를 노래하고 있다. 후렴구가 절에 따라 변화되는 유절형식이다.

2) 음악적 특징

<악보 4> 제주0107_1989/고수천(여, 1927)

허 아 뒤 야 산 이 로 구 나 _____ 요 술 비 영 저 술

들 건 세 맥 이 곡 _____ 흥 매 _____

기 로 _____ 구 나 _____ 앙

<악보 4>는 한 절과 후렴 안에서 3/4·6/8·5/4·3/4·6/8·4/4·3/4·2/4·3/4로 박의 변화가 많다. 음조직에서 구성음은 솔·라·도·레·미로 되어있으며, 핵음은 솔·도이다. 절의 종지음(제7마디)은 도이고, 후렴의 종지음(제10마디)은 솔이다. 제2마디 완전4도와 제6마디 완전4·5도로 도약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생략되는 음 없이 순차적으로 하행하는 선율구조이다. 가사는 제1·4마디와 제5마디의 앞부분을 제외하고 일자다음식(melismatic)으로 되어있다. 메기고받는 형식이며, 가창방식은 독창이다.

5. 북제주군 애월읍 어음2리 <연자맷돌 끌어내리는 소리>

도정 도구인 연자매를 만들기 위해 장정들이 산에서 크고 넓적한 돌을 끌어 내릴 때 방앗돌을 굴리면서 서로 협력하여 힘을 모으기 위해 누군가 “홍애기나 하면서 가자”하면 부르기 시작했다. 이를 ‘방앗돌 끄어 내리는 홍애기’ 또는 ‘연자맷돌 끌어내리는소리’라고 한다.¹⁹⁾

1) 노랫말

1. 어서 어서 모여덜듭서
(후렴)이야호 에에야
2. 일심동력 흥여그네
3. 수만석도 모여들면 가볍습니다
4. 한적 두적²⁰⁾ 얼른얼른 넘어간다
5. 산넘어 산이요 물넘어 물인데
6. 역군²¹⁾님네 모여들어
7. 고개 넘고 재 넘어근
8. 힘을 내면 고개 너머
9. 막걸리사발이 기다림고나

이 곡은 총9절로 되어있으며, 운율은 4.4조이다. 모두가 힘을 합쳐 맷돌을 끌어내리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야호 에에야’의 후렴이 반복되는 유절형식이다.

19) (주)문화방송. 『MBC 한국민요대전: 제주도 민요해설집』, 311쪽 참조.

20) 한번 두번

21) 일꾼

2) 음악적 특징

<악보 5> 제주0911_1989/문창석(남, 1961) 외

<악보 5>의 박자구조는 마디가 바뀔 때마다 3/8·2/4·6/8·4/8·5/8로 변한다. 음조직에서 구성음은 솔·라·도·레·미이며, 핵음은 솔·도 이다. 종지음은 도이다. 선율진행은 전체적으로 생략되거나 도약하는 음 없이 순차 하행 위주로 진행된다. 시김새 특성은 강하지 않다. 제5마디 받는소리에서 조가 바뀐다. 전체적으로 잘게 쪼개는 1자다음식(melismatic)의 선율로 구성되며, 끝을 대체로 퇴성하는 점이 특징이다. 메기고받는형식이며, 가창방식은 독창이다.

6. 남제주군 성산읍 삼달1리 <풀베는소리>

정의지방에서는 검질매는 흥애기가 주로 불리고 있어 출비는소리와 곧잘 혼동되어 달 아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검질매는 흥애기에 비하여 장식음과 멜리스마의 사용이 두드러진다. 이것은 다른 지역의 출비는소리와 비교할 때도 쉽게 드러난다.²²⁾

1) 노랫말

가 : 히야두리 에헤에 에이에 허에 흥애기로구나

어으어 허아 산이로구나 아

나 : 히야두리 에이 산이로구나 아

다 : 허허영 허으어 기야

웬낫 늑낫²³⁾으로 어으어 에 저물이를 조차가자

가 : 겹하늑²⁴⁾가 허이에 고동하늑²⁵⁾로 불어 노난

허이에 출도 잘 몰라가는고나

나 : 스르릉스르릉 으응 낫도 잘도 들어가는구나

다 : 팔월 허으어 중²⁶⁾에 넘어신²⁷⁾고라

자굴²⁸⁾ 튀는소리가 아 와탁탁 와탁탁 어으어 나는구나!

가 : 비료를 한번 해엿더니 에이에 낫도 잘 드는구나 헤이에

갓개²⁹⁾에 맞추완 스르릉 스르릉 하는구나

나 : 하이구 날도 어허어 더워지고 땀이 솔솔이 느리는구낭야

다 : 허어 어으어허 헛 이근³⁰⁾이 어이어

비여 가는데로 호오 호오오 따라가자

가 : 허가에낭칭 허으어 산이로구나 야 허으어 허

흥애기소리로나 헤이에 날이나 새자

나 : 건풍이 건듯 불어 어허 오는구낭야 허

출도 잘도 말라오는구낭야 어 야 어으어

22) (주)문화방송. 『MBC 한국민요대전: 제주도 민요해설집』, 125-6쪽 참조.

23) 왼손에 잡은 낫과 오른손에 잡은 낫

24) 갑자기 부는 하늑바람

25) 쉬지 않고 부는 하늑바람

26) 8월중: 추분(秋分)의 다른 말.

27) 넘어났는지

28) 자귀풀

29) 어깨장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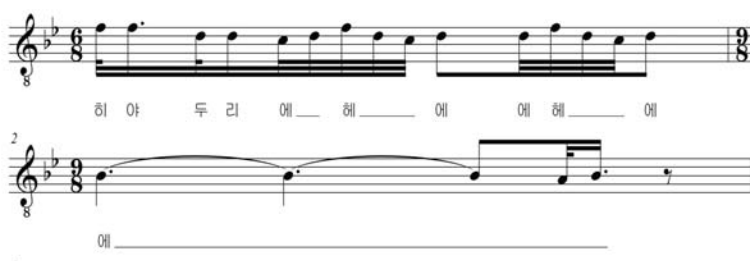
30) 김을 매거나 풀을 베거나 타작을 할 때 가장자리에서 선도하는 사람

요만하며는 빌 만하구나
 다 : 저해 에이에 가 지기전에 요 출밧을 다 마까주어야³¹⁾어
 일주³²⁾에게 해에 체면이 뵈로구나
 가 : 어명해연 집의 늑은이가 해
 정심을 아니 앓언오람신고³³⁾ 오오오 해
 정심밥을 먹엉 비어사 허리가 즈직즈직하게 빌걸
 나 : 일출성산에 해가 떠서 시작하고 어으어
 해가 다 지도록 비여오는구나

이 곡은 세 명이 돌아가면서 부르며, 운율은 정형화되어있지 않다. 꼴을 베어놓으니 불어오는 바람에 잘 마른다는 내용과 해 안에 일을 마치자는 내용, 그리고 점심을 재촉하는 내용 등으로 되어있다. 반복이 없는 통절형식으로 볼 수 있다.

2) 음악적 특징

<악보 6> 제 주0318_1989/ 가: 강재흡(남,1922), 나: 강재훈(남,1924),
 다: 강성태(남1930)



-
- 31) 마무리하다의 뜻
 32) 일을 맡긴 주인
 33) 가지고 오는가



<악보 6>은 3분박으로 되어 있으며, 6/8·9/8·6/8으로 박자가 변한다. 구성 음은 미·솔·라·도·레로 되어있으며, 핵음은 미·라이다. 종지음은 미이다. 이 곡은 9곡 중에 유일하게 미로 종지한다. 선율진행은 전체적으로 생략되거나 도약하는 음 없이 순차 하행 위주로 진행된다. 시김새 특성은 강하지 않다. 전체적으로 잘게 쪼개는 1자다음식(melismatic)의 선율로 구성되며, 끝을 대체로 퇴성하는 점이 특징이다. 이 곡은 3명이 돌아가며 독창으로 불렀다.

7. 남제주군 남원읍 신흥리 <발매는 소리-홍애기>

<홍애기소리>가 발매는 소리로 불리는 지역은 지금의 성산읍 일부와 표선면, 남원읍 그리고 서호리와 호근리를 경계로 동쪽 서귀포 일대로, 이 노래는 ‘솔기소리’라고도 한다.³⁴⁾ 북제주군에는 <홍애기소리>를 발매는 소리로 부른 예가 보이지 않은 반면 남제주군에서는 세 곡이 관찰된다.

1) 노랫말

1. 건들건들 어어 어- 동남풍이다
어어기야 불어를 오는구나 야
(후렴) 음 야 어 어기야 흥

34) (주)문화방송. 『MBC 한국민요대전: 제주도 민요해설집』, 133-4쪽 참조.

2. 검질짓고³⁵⁾ 어 골너븐 밧디다³⁶⁾
어기야 곱은췌³⁷⁾로 여의명가자³⁸⁾
3. 앞명에라근 아 어 들어나오구요
아어기야 뒷명에랑 나가나가라 야
4. 요농스를 지어당 어어 호어 어
국가충성을 흐는 보리로다
5. 요농사를 지어당 어
어기야 부모효양을 흐여나 보자 야아
6. 요농사를 지어당 어어
자식효도를 어 시켜나보자 야아

이 곡은 총 6절로 되어 있으며, 운율은 4.4조의 변형으로 볼 수 있다. 발농사를 잘 짓자는 내용을 노래하고 있다. 주목되는 것은 발농사의 목적이 ‘국가충성’이 먼저이고(4절), 그 다음이 ‘부모효양’이며(5절), ‘자식효도’가 맨 마지막(6절)이라는 점이다. 일반적인 생각을 거스르는 이와 같은 순서에서 백성들이 공동체를 얼마나 중요시했는지 알 수 있다. 또 요즘과 달리 자식보다 부모를 우선하는 사고도 잘 드러나있다. ‘음야 어 어기야 흥’의 후렴이 반복되는 율절형식이다.

35) 김이 무성하고

36) 넓은 밭에다

37) 곱은 쇠, 호미

38) 매어가자

2) 음악적 특징

<악보 7> 제주0513_1989/김만권(남, 1920) 외

The musical score is written in 6/8 time and consists of two parts: a melody (메기) and a response (받음). The melody is in the key of B-flat major (two flats) and features a mix of 6/8 and 9/8 time signatures. The lyrics are in Korean and are written below the notes. The response line is also in 6/8 time and follows the melody.

메기
건 — 들 건 — 들 —
2
메기
3
메기
동 남 — 풍 이 다 — 어 — 기 아
4
메기
불 어 뿔 오 는 구 나 아 흥 —
받음
음 — 아 — 어 — 기 아 흥

<악보 7>의 박자구조는 6/8·8/8·6/8·9/8로 자주 변한다. 음조직에서 구성음은 라·도·레·미·솔이며, 핵음은 라·레인 오돌또기조이다. 종지음은 메기는 소리는 라고, 받는소리는 레이다. 선율진행은 전체적으로 생략되거나 도약하는 음 없이 순차 하행 위주로 진행된다. 시김새 특성은 강하지 않다. 전체적으로 잘게 쪼개는 1자다음식(melismatic)의 선율로 구성되며, 끝을 대체로 퇴성하는 점이 특징이다. 메기고받는형식이며, 가창방식은 독창이다. 제4마디에서 보듯 메기는소리가 끝나는 부분에서 받는소리가 미리 시작되어 메기는소리의 끝에서 받는소리가 부분적으로 겹치는 특징이 있다.

8. 남제주군 표선면 성읍1리 <발매는소리-홍애기>

이 곡은 성읍1리에서 불린 발매는 소리 홍애기이다.

1) 노랫말

1. 허야디야 행 헤이에 에이에 어으어 에 산이로구낭
(후렴)음 야헤 허으기야 흥
2. 요 소리는 헤엥 헤이에 어드레 들어가는 소령
3. 산전बाट39) 헤 헤이에 에이에 남따비 들어가는 소령
4. 저 병에야 허엥 어으어 어으어 일어나나랑
5. 방석만씩 허엥 어으어 어으어 잘도 일어나는구낭
6. 떡빳ㄴ찌40) 헤엥 헤이에 오골오골 잘도 일어나는구낭
7. 서말지기 헤엥 헤이에 논두렁 반돌만큼 남아간당
8. 우리 집군 호웅 호으오 올로 요레41) 모다다듬성
9. 칠성ㄴ찌42) 헤엥 헤이에 에이에 벌어진 우리 집군
10. 다물가찌43) 헤엥 헤이에에이에 다 모되집서
11. 일락서산 허으어 은 해는지고 호으오 월출동경 달 솟아온당
12. 해는 지고 호웅 호으오 호으오 저문 날에 에이에 웬수인 비가 온다 음

이 곡은 총 12절로 되어있으며, 운율은 일정치 않다. 따비로 밭을 일굴 때 흙이 일어나는 모양을 방석이나 떡 잘라놓은 것에 비유하며, 발매는 일꾼들의 대열을 북두칠성이나 별자리에 비유하고 있다. ‘음 야헤 허으기야 흥’의

39) 山田밭에

40) ‘떡빳’은 떡을 알맞게 잘라놓은 것.

41) 이리로 이렇게

42) 북두칠성같이

43) 뻑뻑하게 모여있는 별자리같이

후렴이 반복되는 유절형식이다.

2) 음악적 특징

<악보 8> 제 주0402_1989/조을선(여,1915) 외

메깅

하 아 디 양 행 해 이 에 에

메깅

어 으 어 산 이 로 구 나

메깅

아 아 해 허 으 기 아 흥

받음

<악보 8>의 박자구조는 6/8·5/8·4/8·8/8·6/8으로 자주 변한다. 음조직에서 구성음은 라·도·레·미·솔이며, 핵음은 라·레인 오돌또기조이다. 메기는소리의 종지음(제4마디)은 라이며, 받는소리의 종지음(제6마디)은 레이다. 선율진행은 제5마디에서 순차상행 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생략되는 음 없이 순차 하행 위주로 진행된다. 시김새 특성은 강하지 않다. 잘게 쪼개는 1자다음식의 선율과 긴 지속음이 교대로 구성되며, 긴 지속음의 끝을 대체로 퇴성하는 점이 특징이다.

이 곡은 메기고받는형식이며, 가창방식 또한 메기고받는방식이다.

9. 남제주군 표선면 성읍2리 <발매는소리-홍애기>

이 곡은 성읍2리에서 불린 발매는 소리 홍애기이다.

1) 노랫말

(후렴) 음 야어 어허기야 홍

1. 이야디아 어허 어 산이로구나
2. 산천초목 어허 어 짚어나간다
3. 인간인생 어허 어 다 늙어간네
4. 앞 멩에야 어허 어 들어나오라
5. 뒷 멩에랑 어허 어 나고나가소
6. 검질 짓고 어허어 골 너른 밧디
7. 고븐췌⁴⁴⁾로 어허어 여이어가자
8. 이팔청춘 어허 어 소년놈들아
9. 백발 보고 어허어 희롱을 마소
10. 어제 청춘 어허 어 오닐은 백발
11. 소년 늙어 어허 어 백발이 뵈다

<악보 9>는 총 11절로 되어있다. 2~3절과 8~12절에서 늙어감에 대해 한탄하는 내용을 노래하고, 4~7절에서는 발매는 과정을 노래하고 있다. 1절‘이야디아-산이로구나’, 2절‘산천초목-짚어나간다’, 3절‘인간인생-다늙어간다’ 등과 같이 뜻 없는 구음을 제외하면 앞뒤 구절이 4·5조로 되어있으며, 절과 후렴이 반복되는 유절형식이다.

44) ‘호미’를 뜻함.

2) 음악적 특징

<악보9>제주0417_1989/홍복순(여,1931) 외

메기
이 야 디야 엠
히으 어

반느
어 히 어
산 이 로 구 낭
음

야 어 어 히 이 야
야 어 이 야 흥

<악보 9>45)는 <악보 8>과 조(key), 사설, 리듬을 제외하고 거의 흡사한 곡이다. 이 곡의 박자구조는 전체적으로 3분박 4막자이며, 제2마디에 헤미올라리듬을 썼다. 음조직에서 구성음은 라·도·레·미·솔이며, 핵음은 라·레인 오돌또기조이다. 메기는소리의 종지음(제4마디)은 라이며, 받는소리의 종지음(제6마디)은 레이다. 선율진행은 제5마디에서 순차상행 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생략되는 음 없이 순차 하행 위주로 진행된다. 시김새 특성은 강하지 않다.

잘게 쪼개는 1자다음식의 선율과 긴 지속음이 교대로 구성되며, 긴 지속음의 끝을 대체로 퇴성하는 점이 특징이다. 이 곡은 메기고반느형식이며, 가창방식 또한 메기고반느방식이다. 제4마디에서 보듯 메기는소리가 끝나기 2~3박 전에 받는소리가 미리 시작되어 메기는소리의 끝에서 받는소리가 부분적으로 겹치는 특징이 있다.

45) 김정희, “토속민요 음조직의 변이 양상”, 50쪽에서 악보 인용.

III. 흥애기소리의 음악적 특징 비교

이상으로 분석한 <흥애기소리>의 음악적 특징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흥애기소리>음악적 특징 비교분석

순서	제목	선율형태	리듬형	가창형식 가창방식
1	북제주군 구좌읍 덕천리 _진토굿 파는소리(0214)	1)구성음: 라도레미솔 2)중심음: 라,레 3)종지음: 레 4)순차적 상·하행구조 5)시김새 강하지 않음 6)끝음을 퇴성 7)메기는소리와 받는 소리가 부분적으로 겹 침	1) 1자 다음식 2)긴지속 음	1) 형식:메 기 고 받는 형식 2)방식:독창
2	북제주군 조천읍 신촌리 _진토굿 파는소리(0105)	1)구성음: 라도레미솔 2)중심음: 라,레 3)종지음: 레 4)순차적 하행구조 5)시김새 강하지 않음 6)끝음을 퇴성 7)메기는소리와 받는 소리가 부분적으로 겹 침	1) 1자 다음식 2)긴지속 음	1) 형식:메 기 고 받는 형식 2)방식:독창
3	북제주군 애월읍 납읍리_진토굿 파는소리(0906)	1)구성음: 도레미솔라 2)중심음: 도,솔 3)종지음: 도 4)순차적 하행구조 5)시김새 강하지 않음 6)끝음을 퇴성	1) 1자 다음식 2)긴지속 음	1) 형식:메 기 고 받는 형식 2)방식:독창

4	북제주군 조천읍 조촌리 _꽃베는소리 (0107)	1)구성음: 솔라도레미 2)중심음: 솔도 3)중지음: 도(메김) 솔(받음) 4)순차적 하행구조 5)시김새 강하지 않음 6)끝음을 퇴성	1) 1자 다음식 2)긴지속 음	1) 형식:메 기 고 받는 형식 2)방식:독창
5	북제주군 애월읍 어음2리 _연자맷돌 끌어내리는 소리 (0911)	1)구성음: 솔라도레미 2)중심음: 솔,도 3)중지음: 도 4)순차적 하행구조 5)시김새 강하지 않음 6)끝음을 퇴성 7)후렴 조바뀜	1) 1자 다음식 2)긴지속 음	1) 형식:메 기 고 받는 형식 2)방식:독창
6	남제주군 성산 읍 삼달1리_꽃 베는소리(0318)	1)구성음: 미솔라도레 2)중심음: 미라 3)중지음: 미 4)순차적 하행구조 5)시김새 강하지 않음 6)끝음을 퇴성	1) 1자 다음식 2)긴지속 음	1)형식:독창형식 2)방식:독창
7	남제주군 남원 읍 신흥리 _밭베는소리홍 애기(0513_	1)구성음: 라도레미솔 2)중심음: 라레 3)중지음: 라(메김) 레(받음) 4)순차적 하행구조 5)시김새 강하지 않음 6)끝음을 퇴성 7)메기는소리와 받는 소리가 부분적으로 겹 침	1) 1자 다음식 2)긴지속 음	1)형식:통절형식 2)방식:독창
8				

	남제주군 표선 면 성읍1리 _발매는소리 흥 애기(0402)	1)구성음: 라도레미솔 2)중심음: 라,레 3)중지음: 라(메김) 레(받음) 4)순차적 하행구조 5)시김새 강하지 않음 6)끝음을 퇴성	1) 1자 다음식 2)긴지속 음	1) 형식: 메 기 고 받는 형식 2) 방식: 메 기 고 받는 방식
9	남제주군 표선 면 성읍2리 _발매는소리 흥애기(0417)	1)구성음: 라도레미솔 2)중심음: 라,레 3)중지음: 라(메김) 레(받음) 4)순차적 하행구조 5)시김새 강하지 않음 6)끝음을 퇴성 7)메기는소리와 받는 소리가 부분적으로 겹 침	1) 1자 다음식 2)긴지속 음	1) 형식: 메 기 고 받는 형식 2) 방식: 메 기 고 받는 방식

<표 3>을 보면 <흥애기소리>는 발매는소리로 많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으로 보았을 때 <흥애기소리>는 발매는소리에 가장 먼저 쓰였으며, 점차 다양한 기능에서도 부르게 된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북제주군에 전승되는 <흥애기소리>의 음조식은 구성음이 솔·라·도·레·미로 되어있으며, 핵음은 솔·도, 중지음은 도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다르게 남제주군에 전승되는 <흥애기소리>는 구성음이 라·도·레·미·솔이다. 핵음은 라·레이며, 중지음은 메기는소리에서는 라로 중지하고 받는소리에서는 레로 중지하는 오돌또기조인 것을 알 수 있다. 예외적으로 남제주군 성산읍 삼달1리에 전승되는 <꿀베는소리>는 중심구성음이 미·솔·라·도·레로 되어 있으며, 중심은 라·미이고 중지음은 미로 되어 있다. 즉 이 곡은 메나리조⁴⁶⁾에 해당하는데, <흥애기소리>라고 할 수 있는 공통된 요소들이 존재하

46) 김정희, “토속민요 음조식의 변이 양상”, 53쪽 참조.

면서도 다른 특징을 가진 것을 보아 전승되는 과정에 있어 변이된 곡이라 추측 할 수 있다.

IV. 결론

제주도 토속민요 <홍애기소리>를 채보, 분석한 결과 공통적인 음악적 특징과 개별곡의 특징을 알 수 있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애기소리>가 가진 공통의 특징으로는 첫째, 도약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순차진행 위주의 선율구조이다.

둘째, 음고의 변화가 크지 않으며 하행하는 선율이 많다.

셋째, 잘게 쪼개는 1자다음식(melismatic)의 선율과 긴 지속음이 교대로 구성된다.

넷째, 후렴구를 길게 끝다가 퇴성하는 특징이 있다.

다섯째, 느리며, 시김새가 강하지 않다.

개별곡 각각의 특징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제주에 전승된 <홍애기소리>는 술음계가 많으며, 남제주에 전승된 <홍애기소리>는 오돌또기조가 많다.

둘째, 기능에 따라 가창방식이 달라진다. 다수가 함께 노동하는 경우에는 노래가 메기고받는방식으로 부르며, 혼자서 노동하는 경우에는 독창으로 부른다.

셋째, 메기는소리와 받는소리가 헤테로포니를 이루거나 부분적으로 겹치는 곡들이 있다.

그 외 노랫말은 기능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지며, 운율은 4.4조 계통이 주를 이룬다. <홍애기소리>는 제주도에서 오래 전부터 다양한 기능으로 불려온 노래인만큼 제주도의 음악적 정서를 잘 담고 있는 노래이다. 본고의 결과가 <홍애기소리>에 대한 이해를 돕고, 더 나아가 창작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문학사전(민요·관소리편)』. 서울: 국립민속박물관, 2013.

김영돈. 『제주의 제주사람』. 서울: 민속원, 2000.

송방송. 『한겨레음악대사전 下』. 서울: 보고사, 2013.

이보형. 『경서토리 음구조 유형에 관한 연구』. 서울: 문화재연구소, 1992.

(주)문화방송. 『MBC 한국민요대전(제주도 민요해설집)』. 1992.

2. 논문

김정희. “토속민요 음조직의 변이양상.” 서울: 서울대학교 대학원 음악과, 2016.

조영배. “제주도 노동요의 음조직과 선율 구조에 관한 연구-C.Sachs와 R.Lachmann의 이론을 중심으로.” 서울: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4.

3. 음반

(주)문화방송. 『MBC 한국민요대전(제주도편)』, 1994, 비매품.

<Abstract>

A Study on the Musical Characteristics of Korean Folk songs in Jeju Island *Hongaegi-Sori*

Park joo-hwa

The study examines the musical characteristics of the traditional folk songs of Jeju Island. and the results of an analysis on <*Hongaegi-sori*> of 9 songs from 『Hangukminyodaejeon』 are as follows.

Similar variants of the <*Hongaegi-sori*> exist in various regions. Further research is necessary on whether there is a musical characteristic common in such variants, and on the different characteristics each song has specifically. This study, therefore, focused on the <*Hongaegi-sori*> among the folk songs of Jeju Island and identified the common musical traits in the <*Hongaegi-sori*> type of music.

First, the melodic structures of the <*Hongaegi-sori*> type folk songs did not have the characteristic skips of the disjunct motion.

Second, the structures took a descending melodic structure.

Third, the finely split melismatic melody and the long pedal tone appeared in turn.

Fourth, it brings down(*Toeseong*) the final note of the chorus.

Fifth, the slow and *sigimsae* was not strong.

The other characteristics of the <*Hongaegi-sori*> were as follows.

First, the sol scale was commonly found in the <*Hongaegi-sori*> type passed down in the Northern Jeju area, while the *Odolttogi* scale was found in the <*Hongaegi-sori*> in Southern Jeju.

Second, the forms and methods of singing differed by labor functions. When many people worked together, the songs were sung in the call-and-response form and when sung alone, the songs were sung as a solo.

Third, in some cases, the refrain is overlapped before the end of the called melody.

This study examined the musical characteristics of the Jeju folk song <*Hongaegi-sori*>, among various regional music types existing in Korea. This study, as a research on the music of Jeju, looking forward to more creative musical works based on the traditional Jeju folk song <*Hongaegi-sori*>.